

[2006 광주비엔날레]



여기에 주목하라

아시아의 눈으로 보자 변화·역동성 중심지 광주서 전세계로

올 비엔날레의 가장 큰 특징은 '아시아'가 전면에 부각됐다는 점이다. 아시아의 눈으로 세상을 재조명·재해석한 이번 전시는 현대 미술문화 속에 나타나는 아시아 정신의 뿌리를 추적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열풍변주곡'이라는 주제 역시 현대 아시아의 새로운 변화와 에너지, 역동적 비전과 함께 아시아 권역에 존재하는 문화적 다양성과 풍요로움이 일종의 열풍처럼 전세계로 파급, 확산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담고 있다.

전시회에 참가한 작가중 아시아 출신 작가들은 57명이고, 미국과 프랑스 등 서양 작가들도 아시아를 주제로 작업해온 사람들이다.

참여작들은 샤머니즘, 전통적 제의 요소들을 재해석해 현대적 전설을 창조해 낸 '신화와 환상', 아시아 미술의 두드러진 전통인 자연 풍경에 대한 작가들의 현대적 실험을 살펴보는 '자연과 봄', 동양 철학과 선사상에 영향받은 내면의 풍경을 들여다본 '정신의 흔적' 등의 섹션을 통해 '아시아성'이 담보된 다양한 작품들을 선 보인다.

작가들은 무를 끓고 기도하는 모습의 브론즈 불상과 합장한 손끝에 매달린 안전핀을 통해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고(데이빗 하몬스 작 '안전을 위한 기도') 한국의 '반가사유상'을 활용한 비디오 설치 작업에서는 현대 기술과 전통사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대해 이야기한다.



2006 광주비엔날레 개막을 하루 앞두고 7일 열린 프레오픈 행사에 참석한 미술관계자와 내외신 기자들이 제니퍼 티의 작품 '사랑, 달콤한 낮잠'을 관람하고 있다. /위저링기자 jrwi@kwangju.co.kr

작품속에 광주·한국 있다 외국 작가들이 본 광주

나의 이야기, 우리 이야기를 하는 작품을 만난다면 어려운 현대미술도 더 친숙하게 느껴진다. 올 비엔날레 전시작들 가운데는 광주, 그리고 한국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이 많이 눈에 띈다. 외국 작가들의 눈에 비친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감상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듯하다.

세르비아 그룹 슈카르트의 '빛고을 슈카르

트 협창단'은 광주 대성당과 학생 등 자발적으로 참여한 광주시민들과 함께 광주 우체국 등 광주의 잊혀져가는 장소를 찾아 그 추억을 되새기는 퍼포먼스를 영상으로 만들었다.

프랑스 브루노 세라통그의 '지난 막주회사'는 해외로 도피증인 김우중 회장을 추적하기 위해 결성된 '김우중 조사단'의 행적을 담은

원에 보내 살게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다름'의 문화를 보여주고 16비버의 '우리 사이에'는 평택 대추리, 광주 5·18 국립묘지 등에서 진행한 리서치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사회에서 '경계'가 지니는 의미에 주목한 작품이다.

그밖에 한국에서 10년간 이주노동자로 생활하다 본국으로 귀환한 한 노동자의 여행기를 담고 있는 믹스 리이스의 '리턴', 한국을 비롯, 세계 각국의 노동자들에게 '세계화'에 대한 질문을 던진 모니카 본비치니의 '당신의 거친 손을 아내나 여자친구가 어떻게 생각하나요?' 등을 만날 수 있다.

아이들과 비엔날레를 방문했다면 광주시립 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 1관의 '미술 놀이터'에 찾아가 보자. 이곳에서는 '즐거운 종이공작실' '어린이 건축학교' 등 신나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또 전시관 입구에서 야외공연장 가는 틀립나무길에 전시되는 '광주별곡'은 광주를 배경으로 살아가는 시민 작가 76명의 작품으로 바로 '우리 이야기'를 들려주며 낸시랭 등 젊은 작가 150명의 작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 할 수 있는 열린 아트마켓과 생활아트 전시회가 열린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시민 참여하면 재미 두배 미술놀이터서 문화체험

비엔날레의 주 전시작이 난해한 현대 미술이다 보니 관객들과 쉽게 소통하지 못해 온 게 사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비엔날레를 '일부 작가들만의 잔치'로 규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올해 비엔날레는 관객들을 향해 문을 활짝 열었다. 평범한 광주 시민들이 직접 작가가 돼 작품을 출품했고, 열린 마켓에서는 직접 그림을 구입할수도

있다.

또 음악놀이터, 미술놀이터에서 신나는 문화 체험을 할 수도 있다. 제3섹터 시민프로그램 '열린 비엔날레'에 참여, 비엔날레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보자.

주전시관 앞 테마파크는 행사기간 동안 분위기 있는 '빛카페'로 꾸며진다. 이곳에 가면 CD, 사진, 영상 등 3가지 빛의 소재를 이용, 직

접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다. 또 매일 6시간씩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신청하고 감상할 수 있는 'DJ 음악방송'이 진행된다.

중외공원 분수대는 '빛가든'으로 변신한다. 악기를 직접 연주해 보는 음악놀이터와 전시작품 퍼즐 맞추기, 손수건·휴대폰고리·머리핀 등 다양한 소품을 만들어보는 빛가든 창작소 등이 운영된다.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오른쪽)가 7일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린 리셉션에서 광주예술과, 전남대학생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위저링기자 jrwi@kwangju.co.kr

“외교로 할 수 없는 소통, 예술로 가능”

버시바우 주한미대사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2006 광주비엔날레 명예홍보대사 자격으로 7일 2006 광주비엔날레 프레오픈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주한미국대사관은 비엔날레관 3층 제2전시관에 설치된 미국인 참여작가 도브 브로드쇼씨의 작품 '6개의 대륙' 앞에서 '미국 예술과의 소통'을 주제로 리셉션을 열었다. 이 리셉션에는 버시바우 대사 부부를 비롯해 광주비엔날레 한갑수 이사장, 정기훈·진시영·마이클 주씨 등 참여 작가, 광주 예술과 학생 10명, 전남대·조선대 학생 10여명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리셉션에서 버시바우 대사는 인사말을 통해 "예술이야말로 두나라의 문화가 소통하는데 있어 언어를 뛰어넘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며 "예술은 엄숙한

외교로 할 수 없는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예술과 학생들처럼 예술가 지망생과의 만남은 독특하고 흥미로운 자리"라며 "특히 부인은 위성던 시절 직접 금속공예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도 했기 때문에 더욱 날다리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4개월 전 광주를 방문했을 때는 이 공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확 바뀐 것을 보니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다는 것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버시바우 대사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는 결국 서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나관한 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작 전통제권 환수 시점 등에 대해서는 "오늘은 말하고 싶지 않다. 오늘은 예술에 대해서만 얘기하자"며 즉답을 피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김홍희 예술 총감독



“시민들 자긍심 갖고 마음껏 즐겨 주세요”

“광주 시민들이 국제행사인 광주비엔날레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사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6회 광주비엔날레의 주연인 김홍희 예술 총감독은 7일 광주비엔날레 회의실에서 내외신 기자 설명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홍희 총감독은 “무엇보다 이번 비엔날레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3섹터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며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만큼 많은 시민들이 전시장을 찾아 마음껏 즐겼으면 한다”고 밝혔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활발하게 해외홍보 활동을 펼친 김 총감독은 “세계 주요 비엔날레와 같이 광주를 찾은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관광객으로 변신해 전시장을 찾는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북한 자유를 위한 광주통곡기도대회

• 일시: 2006. 9. 12 오전 6:30 ~ 오후 9:50, 9. 13 오후 6시 ~ 9:50 • 장소: 광주 순복음교회

광주순복음교회에서 열리는 광주통곡기도대회로 모읍시요!